opusdei.org

## 8월 18일 연중 제20 주일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2019-8-17

## 루카의 복음. 12,49-5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 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 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 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 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 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 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 다."

## 묵상

오늘 예수님께서는 꽤나 충격적인 말 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복 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 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 다." (마태 5:9)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 셨습니까? 그분의 탄생에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 광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 화!" (루카 2:14) 라고 말하지 않았습 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그 러나 평화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 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 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와 같지 않다." (요한 14:27) 라고 하 실 때의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는 예 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같은 조용함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늙은 시메온은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반대'의 표징(루카 2:34)이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예언을 했던 모든 예언자들처 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부정의와 잘못 된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 와 회심을 하도록 부르시면서 맹렬히 비난함에 도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는 그 누구도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도전은 평화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분열은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이 아니라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루카 11:23) 라고 예수님께서 단언 하신 것과 같이, 그 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믿음은 꾸미거나 멋을 내는 요소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인생의 기준이나 기초로서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비움이 아니시고, 중립적이지 않으시며, 언제나 긍정적이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평화

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타협적인 중 립이 아닙니다. 악마와 이기심을 포 기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선함과 진리 와 정의를 선택합시다. 그러면 세상 은 분열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열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께서는 기준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삶 을 살거나 아니면 하느님과 다른 사 람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섬 김을 받는 것과 섬기는 것입니다. 자 신의 자아에 순명을 하거나 하느님께 순명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님의 친척들 중에서도 몇몇은 그분의 삶의 방식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마 르 3:20-21) 하지만 그분의 어머니는 언제나 충실하게 예수님을 따르셨으 며, 그녀의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믿음 덕분 에, 끝에 가서는, 예수님의 친척들도 첫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 습니다. (사도행전 1:14) 우리 역시 우 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확실히 고정하 도록 그리고 심지어 어떠한 값이 따

르더라도 언제나 그분을 따르도록 마 리아에게 도움을 청합시다."

I pray 번역 원문 : George Boronat 신부 번역 : 정 대영 요셉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 8weol-18il-yeonjung-je20juil/ (2025-12-12)